

영국 넬슨의 ‘연구로서의 실기’ 모델을 통한 실기자-연구가 되기

Becoming Practitioner-Researcher through Nelson’s ‘Practice as Research’ Model in the UK

박진덕(Park, Jindeok)*

Nelson, R.(2013). *Practice as Research in the Arts: Principles, Protocols, Pedagogies, Resistances*. Palgrave macmillan.

2023년 12월 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행사인 학술심포지엄이 ‘춤으로 사유하기: 춤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무용원 이론과 행사이고 더욱이 ‘춤과 철학’이라는 주제 아래 감사히도 또 의아하게도 나에게 발표를 제안해주셨다. 무용원 이론과 행사에 실기자이자 연구자인 나의 위치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이번 행사는 이론과 행사이긴 하나 이론의 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실기가 어떻게 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학술적 연구로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공유되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전달받고서야 이 행사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선정하게 된 발표 주제는 ‘연구로서의 실기(Practice as Research) 방법론의 이해’였다. 발표를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박사 논문을 펼쳐보았다. 2018년 12월에 인터뷰를 마친 나의 박사 연구는 ‘연구로서의 실기’를 방법론으로 연구하였으며, 영국 로얄 센트럴 스피치 앤 드라마(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의 현재는 명예교수인 로빈 넬슨(Robin Nelson)의 모델이 기반이 되었다. 이번 서평의 목적은 지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의 발표에서 오고 갔던 담론들의 기록을 위해서 넬슨의 ‘연구로서의 실기’에 관한 책 「Practice as Research in the Arts: Principles, Protocols, Pedagogies, Resistances」를 소개하고자 한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아쉬운 점을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2022년 출판된 넬슨의 2번째 개정판 「Practice as Research in the Arts (and Beyond): Principles, Processes, Contexts, Achievements」를 찾았으나 이번 서평에서는 개정판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되었다. 해외도서를 주문하고 받아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쉽게도 2013년 초판의 내용만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 한양대학교 에리카 무용예술학과 조교수, jinduks@hanyang.ac.kr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넬슨의 ‘연구로서의 실기(Practice as Research)’에 관한 개념과, 두 번째 파트는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실기기반의 연구에 관한 용어와 관점들을 다른 필자들이 적은 글을 엮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서평에서는 나의 박사 연구와도 연관된 첫 번째 넬슨의 ‘연구로서의 실기’ 모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파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언제, 어떻게, 왜 ‘연구로서의 실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실기자에서 실기자-연구가로의 전환에 관해서, 그리고 ‘연구로서의 실기’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프락시스(praxis)’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언제, 어떻게, 왜 연구로서의 실기가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연구로서의 실기는 최초로 1980년 중반에 핀란드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영국에서는 한 대학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넬슨은 연구로서의 실기의 시작이 문학이나 음악, 시각예술분야에서 점점 더 학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이에 공연분야에서도 전문 무용학교 또는 공연예술 학교에서도 지식 창출이 강조되는 현상을 언급하였다. 또한, 시각예술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예술에서의 연구로서의 실기에 관한 책이 적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책을 출판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시각예술 분야는 조금 더 일찍 연구로서의 실기에 집중했으며 음악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실기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연예술분야에서의 흥미로운 점은 공교롭게도 연구로서의 실기가 나타난 시기가 예술의 영역과 다른 영역 사이의 다양성이 추구되는 시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로서의 실기를 조사해보면 학제간의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수행하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연구로서의 실기가 학제간의 연구를 위해 탄생하였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실제로 시기가 맞물리며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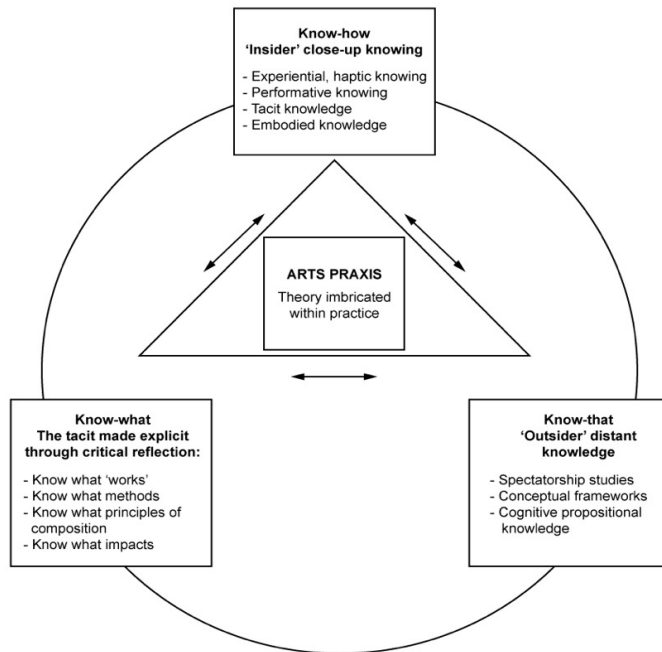
그렇다면 연구로서의 실기란 무엇인가? 간략히 요약하자면 넬슨은 질문과 쟁점들이 실기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실기가 주요한 연구의 방법이 되어, 연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기록문서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실기기반의 연구자들이 실기자(practitioner)에서 실기자-연구가(practitioner-researcher)로서의 전환점에 놓이게 된다. 1인칭 관점에서의 실기경험과 실기로부터 출발한 질문들이 연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안무가나 무용수 등 실기자가 실기자-연구가로서 연구로서의 실기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직종을 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현재 많은 실기자들이 박사과정을 선택한다. 나 또한 박사과정을 수행하기 전에는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하는 실기자이였으며 박사과정 중에 지도교수가 실기자와 실기자-연구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안무자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개인적인 리서치의 과정과 실기를 기반으로 하는 박사 연구는 너무 유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볼레로에 관해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면 주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고 이전 다른 안무가들이 만든 볼레로 작품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습실에서 몸으로 실천하여 안무를 할 것이고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수정하며 그 사이에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거쳐 가는 과정이 실기자-연구가의 연구과정과 유사한 것 같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넬슨은 안무자로서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과 연구로서의 실기의 차이점을 새로운 지식 창출이라 주장한다. 연구자로서의 실기는 무용 실기 즉 연습실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학술적 연구가 되는 것으로, 학술적인 연구는 어떤 분야의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영

역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안무가로서의 연구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지식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나 실기자로서의 연구가 실기자-연구가로서의 연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연습실에서 일어나는 지식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록될 수 있는 '지식'인지를 밝혀내고, 반드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즉, 연구로서의 실기는 작품을 창작하고 창작된 작품을 묘사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근거한 분석, 이론적 근거가 바탕이 되어, 새로운 안무가 아닌 실기를 통한 실천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넬슨의 책에서는 또한 연구로서의 실기의 개념정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로서의 실기'는 서구에서 정의하는 이론과 실기에 관한 분리에 도전하며 이론과 실기를 아우르는 '프락시스(praxis)'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1인칭 관점에서의 주관적 학술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프락시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프락시스'는 '수행하고 - 반영하고 - 읽고 -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 수행하고(doing - reflecting - reading - articulating - doing)'의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서의 지식이 창출되어야 주관적 경험들이 객관적 논의로 이끌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넬슨이 주장하는 '프락시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아는 방식(modes of knowing): 인식론적 다중 모드 모델(multi-mode epistemological model for PaR)'에 관한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Nelson's multi-mode of knowing for PaR (2013: 37)

위 도표에서는 주관적 실기경험이 객관적 논의로 성취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지식, '저것이 무엇인지(Know-that)', '어떻게 하는 것인지(Know-how)', '그것이 무엇인지(Know-what)'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을 보여준다. 간략히 하나씩 살펴보면 '저것이 무엇인지'는 연구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다.

문헌을 통해 얻은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 지식일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1인칭 관점에서 실기를 통해 경험한 지식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연구에서 어떤 실기와 실천들이 일어나고, 연구 방법, 주요 개념 및 연구가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에 대한 지식을 일컫는다. 벨슨의 도표에서와 같이 벨슨은 이 세 가지의 지식이 연구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론을 겸비한 실기 ‘프락시스’와 함께 새로운 지식들이 창출됨을 주장한다.

길지 않은 이 글을 통해 연구로서의 실기 한 모델로서 벨슨의 책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실기자로부터 실기자-연구가로서의 전환점에서 많은 고충이 있는 박사연구가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기자-연구가 되기’가 무엇인지 서술하고자 하였다. 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론과 심포지엄에서 받았던 질문 하나를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로서의 실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이러한 연구가 안무가로서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벨슨의 ‘연구로서의 실기’의 탄생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연습실 기반의 예술이 학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연구로서의 실기가 학제간 연구의 형태로 많이 드러나고 있음은 학제간 연구에 연구로서의 실기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추측한다. 두 번째 질문은 짧지 않았던 몇년간 연구로서의 실기에 대해 고민했던 나 역시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연구로서의 실기를 통한 실기자-연구가 되기는 나에게 실기를 마주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해주었음은 확실하지만, 아직도 스스로 이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연구로서의 실기’의 본 목적은 안무가의 역량 강화가 아닌 주관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는 실기를 학술적인 연구로서의 객관화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실기자들이 실기자-연구가의 길을 선택하고 실기자-연구가 역시 현장에서 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실기자-연구가로서의 활동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를 포함한 실기자-연구가들이 더욱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